

2019 평등행진·평등인천 선언 기자회견

인천,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9.10.14(월)11:00 인천시청 잔디광장

진행순서

- 사회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나에게 평등이란
 - 장애인 : 신경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주노동자 : 조혜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안마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여성 : 주솔현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 이주민·난민 : 나자트 한국이주인권센터_와하
 - 청년 : 안경민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 청소년 : 이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성소수자 :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노동자 : 황호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

김경남 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청북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여 2019 평등행진의 시작과 평등인권을 선언하는 것은, 혐오와 배제, 차별이 정점을 찍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평등을 유보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모든 것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양한 존재로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차별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에 등급을 매기듯 내거는 ‘나중에’와 단계적이란 기만을 끝내고, 평등실현의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다.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

혐오와 차별은 인간에게 ‘없어도 좋을, 미완의, 미성숙의, 비정상적 존재’란 낙인을 찍는다. 불안과 모멸감을 삼켜야하는 일상의 반복,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맞서 인간답게 살고자 별이게 되는 극한의 싸움, 그 싸움 한번 나가지 못한 채 차별의 톱니바퀴에서 이르게 되는 죽음과 영원한 이별까지, 평등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청소년, 청년, 장애인으로 살면서 인종, 국적, 성별, 나이, 성적지향, 외모, 사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속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이다.

혐오선동세력과 정치권 그리고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당신들은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며,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들과 역사를 기만한다. 국민도 시민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도 등급도 낮아서 차별도 아니니 그저 가만히 있으라 한다. 이 말들 어느 한구석에라도 공존의 기본인 평등이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결과, 곳곳에서 당신들의 합작으로 모든 이들의 평등이 유보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조례들을 차별금지법과 같으며 가짜뉴스와 편견으로 왜곡해가며 무너뜨리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같다면 오히려 더 만들고 지켜내야 할 의회들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하는 국회가 있다. 성평등과 문화다양성, 민주시민교육 등을 위한 조례가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이 금기처럼 여겨지는 이 어이없는 풍경 앞에서 가장 먼저 각성할 것은 정치인들이다. 혐오선동세력을 핑계로 모두의 평등을 유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서서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례조차 빈번해지

고 있다. 불평등과 반인권을 묵인할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의회와 국회 그리고 청와대에 이르게 된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유보하는 권한이 아니라, 권리실현의 의무를 부여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기 위해선 차별만큼 용이한 도구가 없다는 점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기업과 자본 그리고 법제도와 공권력을 차별을 공고히 하는데 앞장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국가 역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평등을 유보시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의 동료시민됨을 부정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권의 후퇴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정당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는 나중 말고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19 평등행진은 물론이고, 인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제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는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을 비롯하여, 더 많은 인천의 사람들과 평등을 말하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행동들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특정사유를 골라내며 삭제했던 그 순간, 2013년 차별금지법안 철회의 그 순간, 삭제되고 유보되던 그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평등사회의 문을 여는 힘을 모으며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단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누구도 우리를 모욕할 권리는 없다! 혐오선동 끝장내자!
민주주의는 우리와 함께 전진한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

2019.10. 14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